

일주문

동국대 정각원 4주년 기념법회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9월 24일 정각원 토요법회 개원 4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동국예소리 전통예술공연을 개최했다. (02)2260-3016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조계종 전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10월 28일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군중교구 예비 군승 모집
조계종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은 10월 7일까지 사미계 이상을 수지한 세남 35살 이하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예비 군승요원을 선발한다. (02)749-8646

조계사 시월상단 맞이 국화영산재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0월 29일 9시 30분 대웅전 앞에서 시월상단 맞이 국화영산재를 봉행한다.

나를 비우는 미소기도 행복순례
서울 옥천암 주지 정법 스님은 9월 24일부터 월 2회 서산 보원사 복원을 위한 미소기도 행복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7

동화사 일요 선지식 법회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은 10월 9일 대구 동화사 일요선지식 법회에서 법문한다.

전국비구니회 차기회장 선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10월 10일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지종 원성 대선사 추선법회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지성 정사는 9월 8일 총지종 총본산 총지사에서 제31주기 멸도절 추선법회를 봉행했다.

금강대, 인문학 강좌 개최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9월 28일~12월 14일 12주에 걸쳐 '논산시민을 위한 인문학좌, 금강아카데미'를 진행한다. (041)731-3614

설동근 공불연 7대 회장, 동화사서 취임법회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0월 9일 8시 30분 대구 동화사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신입회장으로 취임한다.

역경과 교육, 포교 중심 도량으로

봉선사 신임주지 정수 스님

“역경·포교 중심도량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정수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주지로 추대된 정수 스님을 임명했다. 정수 스님은 임명식 후 기자회견에서 “봉선사 사부대중의 화합을 통해 추대돼 대중들에게 감사하다. 시적이 좋은 만큼 끝도 좋도록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수 스님은 “봉선사는 운허 스님 상

주도량으로 한글번역, 역경도량이 다. 포교중심도량으로서 종단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역경·포교·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 스님은 임기 동안 봉선사 승려노후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봉선사 승려노후복지 문제 가운데 특히 소임을 보지 않는 스님들의 노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동안 잡음이 많던 봉선사 말사 주지 임명에 대해서는 “말사 주지 임명은 본사와 말사의 소통문제가므로, 많은 스님들과 상의하고 말사와 소통해서 공정평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 말사의 포교 복지



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수 스님은 봉선사에서 운경 스

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3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76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5년 송광사 이래 10안거를 성만했으며 백화암, 용문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임명식에서 자승 스님은 “신임 주지 임명장 수여식에 현 주지와 신임주지가 같이 오시니 보기가 좋다”며 “봉선사는 용주사와 더불어 한수 남북을 담당하는 주요한 교구본사이다. 포교·교육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5대결사 등 종단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다. 앞으로의 4년도 고생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덕현 기자

불자라면 대장경 목차라도 알아

권오민 교수, 제20회 행원문화상 역경상 수상

“역경사업에 관심을 가져 준 행원문화재단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9월 21일 설립20주년 기념과 제2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원문화상 역경상을 수상하게 된 경상대 철학과 권오민 교수(사진)는 “보잘 것 없는 행적에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오민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 석·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아비담팔경도론) (아비달마발지론) (아비달마장현종론) (아비달마구사론) (금철십론) (승중심구의론) (아비달마순정리론) 등을 비롯해 그의 약본인 <현종론>을 완역하는 등 대중적인 시각으로 불교학의 정립과 불교입문을 개척해왔다. 권오민 교수는 “조계종단의 3대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역경’ 사업이다. 글자는 글자 자체로만 이해돼, 진정한 ‘역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올해는 고려대장경이 조성된 지 천년이 되는 해이다. 고려대장경은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는 불교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오민 교수는 “고려대장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며 “고려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 모음집으로, 인생만사에 관한 모든 탐구와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대장경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불자라면 어떤 목차가 실려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오민 교수는 제20회 행원문화상 수상을 영예를 안아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은정 기자

음성공양할 단원모집 활성화 되길

아비라테양상불 서수일 단장 예술부문 특별상 수상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다니면서 공연을 펼쳤던 아비라테양상불 서수일 단장(사진)이 제20회 행원문화상 예술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서수일 단장은 “상을 받을 것이라곤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놀랐다”고 말했다. 아비라테양상불은 어느 합창단들이 자신의 수상경력을 쌓기 위해 큰 무대 공연을 고집하는 것과 달리, 노인요양시설,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을 주 무대로 활동해 왔다. 120여 회가 넘는 무료 음성공양을 통해 누구보다 소외된 이웃과 자비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다. 2004년 음악을 통해 포교에 뜻을 둔 불자들이 모여 구성된 아비라테양상불은 찬불가, 찬불가요, 가요합창, 민요합창, 어린이 동요독창, 중창, 코믹합창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공연을 해왔다. 또한 찬불가를 보급하기 위해 음성공양이 잘 닿지 않는 영세 소규모 사찰과 합창단이 없는 산사에서 찬불가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서수일 단장은 ‘알아차림’ ‘무애가’ ‘하고픈 말은 언제호야’ ‘낙타’ 등을 작곡해 불교음악의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은 개인교음악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세



요. 하지만 막상 공연을 다니다 보면 오히려 찬불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비라테양상불은 현재 어느 사찰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적 문제와 더불어 단원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수일 단장은 “이번 수상계기로 아비라테양상불이 많이 홍보돼 단원모집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단장은 “아비라테양상불은 앞으로도 불교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활동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영천 봉등사, 대웅보전 낙성

영천 봉등사가 법당 증축공사 끝에 지역 불자들의 수행과 각종 문화활동을 위한 종합불교회관으로 거듭났다. 영천 봉등사(주지 지홍)는 9월 21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등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에 앞서 대웅보전 삼존불 점안식 및 상월원각대 조사 존상 점안식과 공덕비 제막식 등이 열렸다. 도용 스님은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길상지라. 임심정정 정진해 성불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9월 21일 동국대 백상탑 광장에서 ‘세계평화 기원식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총회에서 정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12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세계평화기원 묵념, 유엔사무총장 메시지 전달, 총학생회장의 봉행사, 축사, 석립회장의 세계평화기도축원 등이 진행됐다. ‘세계평화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ace)’은 1981년 유엔총회에서 유엔과 회원국들 및 모든 인류가 평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정해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한 날이다. 노덕현 기자

경산 환성사 복원불사



경산 환성사(주지 성담)는 9월 20일 환성사 복원불사 및 1시간 이운대작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500여 대중이 운집한 이날 낙성법회에서는 석종사 금강선원장 혜국 스님이 축원 법문을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항 장사상륙작전 전물용사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강)는 9월 22일 장사해수육장 내 위령탑에서 제32회 장사상륙작전 전물용사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1부 전물장병전헌제, 2부 추념행사 3부 장학금전달식 등 전물장병 영가시식이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은해사 개산 1202돌 개산대재

조사전 낙성식 · 보살계 · 만등불사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는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 809년)에 해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2돌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해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수행정신과 뜻이 서린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조사전 낙성식·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 법회 안내 ■
□ 10월 2일(일)
· 오전 9시 개산조 해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부도전)
· 10시 30분 조사전(祖師殿) 낙성식
· 11시 육법공양, 개산법요식
·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참금 : 보살계 - 1인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만원
* 동대구역 지하도 → 하양 → 은해사, 남부정류장 → 경산 → 은해사 포항역 → 영천 → 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 종무소 (054)335-3318 ~ 9
원주실 (054)335-5220

개산대재 대법회 10월 2일 (일요일 음 9.6)

- 조사전 낙성식·보살계·만등불사
36師 전계대화상 설정큰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교수아사리 해인큰스님 (동국 일타 문도 대표)
갈마아사리 해총큰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은해사 교구 각 말사 www.eunhae-sa.org